

종이보하거기!

당신을 향해
인권을 날린다

제 4호

Jung, 예균, 주신원,
필름, 박종하, 선우

노원지역 청소년인권운동아래 함께 발행



영화에서 인권까지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특별기고
개포고 레이드



닉우스 코너
세상은 요지경



학생과 화장 그리고 학생다움



화야 활동소식
화야는 요즘 뭐한데?

5월 5일, 우리가 모르는 소년들의 저항

우리가 모르는 어린이날의 또다른 장면들

"어린이날 5월 5일이 왔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에게로
사람의 권리를 주고 대우하자는
어린이날이 돌아왔다." ... (생략) ...
"조선의 어린이여!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
조선의 부흥여! 그들에게 정성이 있으라!"
- 1923년 5월 5일 동아일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드리는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어린이날은 어떤 의미인가. 누군가는 주변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을 떠올릴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노동의 하루가 연상될 뿐, 왜 어린이날이 생긴 것인지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떠올려 볼 기회는 적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이제, 아니 꽤 '오래'전부터 그냥 흘러가는, 매해 있는 수많은 휴일 중 하루 이상의 의미가 아니니까. 처음 어린이날이 열린 해는 1922년이지만 공식적인 '제1회 어린이날'은 1923년으로, 또 5월 1일로 기록하고 있다.(다음 해부터는 5월 5일로 변경) 어린이날의 출범으로부터 92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가 제9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글에선 다루려고 한다.

1923년, 동아일보는 어린이날을 맨 위 지문과 같이 표현했다.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무슨 상황인지 알기 어렵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보자.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10년 후 즈음인 1921년, 적지 않은 천도교의 (청년)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적으로 21개의 '소년단체'들을 결성한다. 이들은 어린이에게 존대어 쓰기 운동 등 소년(초기 '소년'의 개념은 남/여 구분이 거의 없음)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사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922년 천도교 소년회가 개최한 '제1회' 어린이날은, 1923년 천도교 소년회, 조선소년단 등 소년운동단체가 모인 조선소년운동협회가 개최한 '제1회' 어린이날로 이어졌는데, 당시 요구하던 사항들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등 '어린이들을 객체가 아닌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라는 구호들이 주를 이뤘다. 어린이날 행사 자체에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한 적극적으로 이 움직임에 주체로서 참여했는데, 약 1000여 명의 남녀 소년들이 당시에 전단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며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린이날을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날'로만 설명을 통치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5월 5일, 그날은 어린이라는 이름의 존재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와 인격적 대우를 외치며 가두시위와 투쟁을 벌인 날로 역사가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 16~19살 나이 사이의 소년들이 구속된 것을 보더라도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지금에 와선 그 흐름은 완전히 끊겼다. 어린이날의 유래와 과정들, 그 어떠한 의미도 학교 역사책에선 알기 어렵고, 어느 누구도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 아무도 듣지 못한 그날의 함성을, 휘날리던 '어린이 해방'의 깃발을, 어린이들의 인권과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던 거리 위에서의 저항의 움직임을, 하나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은 오늘날 어린이 / 청소년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 해야만 한다.

-신원



개포동의 개포고는 재작년 '개포고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강제 철거하고, 그 후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보복행위 등을 일삼아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벌어진 개포고 레이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개포고의 이런 악행에 항의하기 위해 대자보 작성자인 저를 포함한 6명의 재학생이 각자 대자보를 작성해 붙이고 수백 장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학교를 습격한 일입니다. (개포고 안녕들하십니까에 관해서는 네이버에 '개포고 대자보'를, 개포고 레이드에 관해서는 오유에 개포고를 검색해보세요.)

지난 레이드를 같이한 분들의 노고에 비해 매우 안타깝게도 학교는 여전히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소외와 고립이 두려워 의견을 숨겨온, 문제의식을 쪽 가져온 개포고 학생들에게 똑같이 변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학교에는 대자보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매우 작은 것일지라도 더 나은 학교를 건설하는 데에 한번의 망치질을 더했습니다. 그 소리가 작을지라도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만큼 학교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차별에 대해 가장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존재,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인식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우리의 답답함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구와 네티즌들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주로 대단하다,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거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먼저 겨우 종이 몇 장 벽에 붙이는 것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 일로 추앙 받을 정도로 위축되고 경직된 사회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 엄청난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잘못된 언행에 문제제기 하는 것, 그것도 어렵다면 그 잘못된 언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변에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 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등 이런 작은 실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상식이 되고 그러한 상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학교로 변화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16일 “탈통법” 시행되다



2013년 3월 2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 씨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심재철 씨는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다고 해명했으나, 얼마 뒤 누드사진이라고 검색하는 사진이 연이어 공개되자 청소년들이 성인물에 얼마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얼마 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했다. 이것이 바로 2015년 상반기에 논란이 되었던 '탈통법'의 시작이다.

탈통법은 전 국민을 호구로 만든 단통법에 빚대어 붙은 별칭이다. 이 법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차단하는 앱을 깔도록 통신사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그 앱이 15 일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적은 메모리 용량에 앱 하나가 더 추가되고,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SNS나 게임 앱, 동영상 편집앱 등이 차단되는 등 오작동되는 경우도 많아 원성이 자자하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이 앱이 개인정보 유출의 여지가 심각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

“학생인권옹호관” 선발되다



헌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법령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는 아무것도 정해져있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2년 1월 26일, 서울시의 국·공·사립학교에 모두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생인권 침해로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3년이 지나도록 학교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2월 16일, 3년 만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선발되면서 학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계기는 페이스북에서 본 한 예능프로 사연 영상의 일부였다. 영상을 통해 본 엘리베이터 4층을 내려가는 동안 완성한 여중생 분의 신부화장은 너무 놀라웠다. 호기심과 놀라움은 프로그램에서 딸의 화장을 두고 '학생다워야지'라며 다그치는 어머니를 캡처한 이미지에서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어서는 방청단 투표의 질문과 결과를 캡처한 이미지가 보였다. - (질문)여학생 일부 찬성, 학부모 반대, 남학생 반대. 이걸 보니 분노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화장에 대해 일방통행적 반응을 보인다. 화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그러면서 정작 여학생의 화장에 대해 '날라리, 싹 티 나는 여자'란 낙인을 찍거나 '학생답지 못하다'라며 일침을 가한다거나. 셋 다 매우 '문제적 발언/태도'이지만 이 중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이 화장함에만 특별히, 유난히 비난적인 태도'를 꼬집으려 한다.

여성청소년의 화장을 가지고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답지 못하게' 그게 뭐냐고 쏘아댄다. '학생다움'이란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며, 폭력적인 말이다. 우선 학생다움은 학생들의 공통적, 객관적 특성을 분석하여 끌어낸 말이 아니다. 먼저 '이래야 한다'라는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고선 객관적인 척하는 말에 더 가깝다. 그래서 불분명하다. '순수한 나이니까 화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거짓말. 실은 '섹슈얼하지 말아야함' 즉, 성적이지 않아야 함이 그들이 들이대는 더 선명한 잣대이다. 예로 화장하는 여학생에게 '싸보인다', '술집여자 같게 그게 뭐냐'는 무례한 말들을 던져대는 교사의 시선을 생각해보자. 교사의 말은 '너 순수하지가 않구나'가 아니라 '너에게서 성적인 모습을 보았어'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 '섹슈얼하지 말아야함'은 '순수해야 함'의 포장을 벗기고서도 불분명함 투성이인데 이는 '학생다움'이 자의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다움은(특히 외모규제에 있어 '학생다움'은) 학생이 스스로 인정한 말이 아니므로 자의적이다. 학생 아닌 누군가가 멋대로 붙인 스티커이다. 학생들의 외모는 더할 나위 없이 '보이는 존재'다. 머리 길이·색깔·구불구불한 정도, 교복 길이, 폭, 핏, 넥타이, 얼굴 색깔, 눈 모양, 입술색, 머리카락 양말 색 검사. 외모와 성적 매력/이미지를 따는 아이들보다도 깐깐하게, 일방으로, 매일같이. 누가 이들을 보는가? 매일같이 교문 앞에 서있는 생활지도부장. 수업 중에 갑자기 '너 눈/입술이 왜 그래?'라며 산동을 깨는 교사. 일괄적으로 교복 길이 등의 검사를 한다고 통보하는 담임 교사가 선명히 떠오른다. 화장을 하는 학생이든 하지 않는 학생이든 같은 하얀 피부색, 빨간 입술색. 눈매나 눈 주변 음영을 두고 교사 별 반응이 제각각임을 또 그 교사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욕을 더 먹는지 좀 덜 먹는지가 다르단 걸 느낄 것이다. 이런 불분명함 투성이에 한 가지 확고한 것은 교사의 부당한 외모 참견(심지어 학교는 외모지상주의 비판을 '가르치는' 공간이다)에 '왜 이러세요?'라고 하지조차 못하는 이미 기울어진 권력 구도이다. 폭력은 이미 정립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학생다움은 종종 학생다워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가진 듯 착각하게 만든다. 또, 학생다워야 한다는 대상에게 잣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어떤 짓을 저지르든 괜찮다고 생각하게 한다. 성적인 비하, 교육 목적을 빙자한 징계나 체벌, 인격적 모욕은 다른 이들과 얼굴에 크림기가 있고, 입술이 빨갛고 눈매가 좀 진하거나 음영이 선연한 듯 '보이는' 이들에게 가차 없이 쏟아진다. 그런데 폭력은 학생 외부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내면화되는데 그 중 가장 당연한 양 드러나는 것이 '보다 어린 사람의 화장을 미숙하게 묘사하고 회화화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그래도 좀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대 초반과 함께 어렵사리 서울, 경기, 광주 등의 지역에서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두발 자유는 그나마 학생인권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화장 규제'는 두발규제와 같이 외모 규제의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주목조차 받지 못한다. 이에는 분명 화장에 얽힌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이 형성하는 '공공연히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문화적 맥락: 젠더적인 문제(성별에 따른 문제)와 그 때문에 일반적인 규제의 대상이 갈리는 것, 사회에서 '성적임이 선명히 읽히는 맥락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학생, 남학생-여학생 간의 두 가지 구도로 보다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것 등]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 '학생의 화장은/도 규제의 영역이 아니어야 한다.' 당신이 교사이든 부모이든 학생이든 타인의 화장한 얼굴을 보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종이비행기를 만든 화야가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다면?

청소년 인권이나 지역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화야와 함께 활동하고 싶다면?

인재든지 누구나 환영합니다! 화야와 함께 해주세요.

<http://cafe.naver.com/hwaya> / 연락처 : 010-4083-4987



영화에서 인권까지
영화 '하이힐 (2013)' 리뷰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이 영화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

첫째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윤지욱이 MTF 트랜스젠더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윤지욱이 MTF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영화에서 몇십번은 직간접적으로 알림에도 50개 이상의 영화리뷰 중 윤지욱을 '그녀'라고 표현한 리뷰는 몇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지욱(차승원 분)은 극중에서 여성호르몬을 투약하며 성전환 수술을 준비하는 'MTF 트랜스젠더' (*)이자, 강력계에서 이름난 해병대 출신의 명형사다. 극 초반에선 용기를 든 11명과 싸워 등에 나이프로 찔리고도 (!) 발라버리는. 잠실경찰서 강력계의 싸움꾼이자 명형사라는 신분, 그리고 여성의 정신을 가진 'MTF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의 조합은 그저 문득 보기엔 상당히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차승원은, 결국 사회의 '보통 남자'와 'MTF 트랜스젠더'라는 이 '어색한' 모습을 모두 갖추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녀는 호르몬 치료만을 받을 뿐 이 영화 끝까지 수술은 받지 못한다. 사회에서 부여한 '남자' 중의 남자, 윤지욱 형사란 타이틀은 공항에서 성전환 수술을 위해 출국을 준비하는 그녀의 발걸음마저 가로막는다.

윤지욱이 원래 모습을 숨겨야 했던,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20년 가까이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답은 바로 '사회'의 시선이다. 성소수자들은 잘못이 없다. 그저 성소수자로 태어났을 뿐인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소수자들에게 학교, 직장, 가정, 그리고 사회가 던지는 대부분 냉정하다 못해 혐오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성소수자들은 이런 사회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애써 숨기거나, 혹은 원치 않는 '아웃팅' (**)에 고통 받고있다.

뜻 풀이:

* MTF 트랜스젠더(male-to female transgender): 남성(male)에서 여성(female)으로 사회적인 성을 바꾼 사람. 자기 자신을 여성이라 정의 내린 '신체적으로 남성'인 사람을 지칭

** 아웃팅: 성소수자를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성소수자라 밝히는 행위

-에코

화야는 요즘 뭐한대?



화야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회원들끼리 인권세미나를 합니다. 4월에는 '아웃인권 읽기'라는 주제로 장애인인권, 노동인권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5월에는 [왜 학교는 불행한가]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야에서는 약 1달마다 인권의 한 주제에 대해서나 인권에 관련된 책을 읽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그 다음 세미나 때 무얼 가지고 할 것인지 다 같이 논의한 후 결정합니다.

노원구 중계동하면 유명한 것 하나있지요 바로 은행사거리 서울에서 3대 학원가라고 불릴만큼 많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거리가 있을 만큼 노원구의 교육열은 꽤나 뜨겁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교육열만큼 노원구의 학생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에 화야가 캠페인을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가는 학교의 환경은 어떠한지, 그 곳에서의 학생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분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학생분들이 많이 다니는 은행사거리와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화야의 활동소식이 궁금하시다면? <http://cafe.naver.com/hwaya> (화야 카페) 또는 <http://www.facebook.com/nowon.hwaya> (화야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도 좋아요!)

편지상후기

어느덧 네 번째 종이비행기! 만들 때마다 매 호마다 차원이 다르게 진화하는 것 같아서 좋다.

창간호 만들 때 생각만 하면... (한숨) 이제 종이비행기

다 뚫으면 저번처럼 계속 뿌리고 다닐텐데, 혹시 이걸 키 좀 큰 남자사람한테 받았다면 그 사람이 겁니다. 심심하면 전화하세요-

-필부

올해부터 화야를 쉬고있는 준(또는 동이)입니다.

청소년의 화장에 대해 유독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

할말이 많았는데 분량상 잘라내느라 넘 슬펐어요.

카페에 못 한 말들을 기사 초안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준 / 김동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리저리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아아... 여러분 에코를 용서해 주세요...

-에코

종이비행기 읽고 은혜 받으세요.

노원에서 청소년 인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 3

-신원

종이비행기를 만들 때마다

'이번엔 어디를 향해 인권을 날릴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선우